

『물리주의, 또는 거의 충분한 물리주의』*

Jaegwon Kim,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백도형†

I

김재권 선생이 또 새 책을 내셨다. 이번에 나온 책에서 선생은 전작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Mind in a Physical World*, 1998)에서 선보인 기능적 환원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물리주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선생은 지난 2000년 가을에 한국학술협의회와 대우재단이 주관하는 「제 1회 석학연속강좌」를 통해 5번의 강연을 발표하셨는데, 이 책은 그 때의 강연내용에 새롭게 두 장을 덧붙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추가된 두 장(2, 5장)은 기왕에 제시된 수반논변을 더욱 다듬어 그에 대한 비판에 답하고 관련되는 논의를 보완한 내용과, 기능적 환원주의 이외의 다른 동일론 내지 환원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보완을 통해서 선생은 자신의 기능적 환원주의가 단순히 심신 문제에 대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으로써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 속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한 정신 속성에 환원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옹호하고 있다. 선생은 비록 이러한 기능적 환원주의가 정신 속성의 일부인 감각질의 본래적 성질(*intrinsic quality*)을 기능화하지 못하는 까닭에 물리주의를 완전한 참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물리주의를 옹호

* 접수완료 : 2005. 6. 10

†승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하는 데에는 거의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II

1장에서 선생은 심신 문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정신 인과와 의식의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하고, 이 두 문제가 물리주의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된다고 주장한다. 선생은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에서처럼 배제논변과 함께 수반논변을 제시함으로써 물리주의와 정신 인과를 함께 옹호하려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면서 물리주의와 정신 인과를 함께 옹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속성 2원론 대신 기능적 환원주의를 제시한다. 그런데 기능적 환원주의를 통해 물리주의가 옹호될 수 있으려면 감각질 등 현상적 의식이 기능화될 수 있어야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 회의를 표명한다. 그렇다면 현상적 의식에 관해서는 정신 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게 되며, 이 점은 물리주의의 예외적인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2장에서는 수반논변을 예전의 형태보다 더욱 정교히 하며 여러 비판들로부터 방어한다. 과잉결정, 일반화 논변, 그리고 네드 블록이 제시한 인과적 배수 논변(Causal Drainage Argument) 등이 논의된다. 수반논변, 배제논변은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부수현상론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논변으로서, 이제 이 논변들을 통해 정신 인과와 의식이 왜 문제가 되는 지가 분명해지고, 이로써 1-2장에서 이 책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마당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1-2장에서 제시된 배제논변과 수반논변을 통해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속성 2원론이 논박되었다. 선생은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3장에서는 데카르트식의 실체 2원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인

과적 논변을 구성함으로써 비물리적인 마음은 설사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없음을 보인다. 이제 3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선생은 속성 2원론 뿐만 아니라 실체 2원론도, 즉 어떠한 형태의 2원론도 정신 인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정리한다.

결국 선생은 정신 인과의 문제, 나아가 심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심신 환원주의는 소박하고 과도한 입장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흔히 받고 있으며, 잘 알려진 여러 반론들이 엄존하고 있으며 선생께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선생은 환원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많은 철학자들도 환원적 설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제 4장에서 선생은 환원주의와 환원적 설명에 관해 검토한다.

정신적인 것의 환원불가능성은 흔히 “설명적 격차(explanatory gap)”라는 표현으로도 제시된다. 환원이나 환원적 설명을 통해 정신 인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런 “설명적 격차”를 메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4장에서 선생은 네이글의 전통적인 환원 모형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러한 “설명적 격차”를 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적 환원을 통한 환원적 설명을 거듭 제시한다.

사실 김재권 선생은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을 전후하여 기능적 환원주의를 처음 제시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정신 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원주의를 옹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때의 환원주의 주장은 환원주의가 옳음을 논증하였다기 보다 정신 인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원주의를 **요청**하는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였다.²⁾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 이후 네이글의 환원모형을 비판하고 기능적 환원설명을 제시하는 것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 인과

2) 줄고(1995), 「환원, 속성, 실재론」(『哲學』 제 43집 1995 봄호, 한국철학회)의 3장, 특히 p. 115를 보라.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원적 설명을 제시하려는 취지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 책 『물리주의, 또는 거의 충분한 물리주의』의 4·5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5장에서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과 브라이언 맥래플린(Brian McLaughlin)의 유형 물리주의, 그리고 4·5장의 후반부에서 네드 블록(Ned Block)과 로버트 스톨네이커(Robert Stalnaker)의 동일론 논변을 제시하고, 이러한 환원주의의 입장들이 정신 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기능적 환원주의와 차별화한다. 이렇게 선생 자신의 환원주의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환원주의를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기능적 환원주의가 예전의 환원주의처럼 요청이나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설명의 격차를 메워줄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 책의 대단원으로서 지금까지의 논변들을 개괄하면서 물리주의와 기능적 환원주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의 물리주의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정신 속성의 일부인 감각질의 본래적 성질은 기능화도 환원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거의 충분한 물리주의가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III

이 책이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에 비해 진전된 것은 수반논변을 보다 정교히 하였다는 점과 기능적 환원주의 이외의 다른 환원주의 입장들을 검토하였다는 점, 그리고 선생 자신의 물리주의 입장을 정리해서 책의 제목처럼 “물리주의, 또는 거의 충분한 물리주의”를 표명한다는 점이다. 특히 앞에서 서술한 대로 선생은 환원주의의 여러 입장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환원주의 입장들이 대체로 정신 인과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으로서 요청된 것일 뿐, “설명격차”를 메우기에는 부족함을 논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능적 환원을 통한 환원적 설명을 다른 환원주의 입장들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 대목은 인과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생의 존재론과 관련지어 앞으로 더 논의되고 발전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³⁾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물리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물리주의의 한계도 인정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선생은 의식과 감각질 등 현상적 속성의 본래적 성질은 기능화되지 못하고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⁴⁾ 물리계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하고 정신 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의식과 감각질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1인칭적, 사적, 주관적이기 때문에 물리학 등 과학이 지향하는 객관성의 틀에 결코 편입될 수 없다는 반물리주의자들의 잘 알려진 주장에 선생도 일부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

하지만 나는 감각질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 태도를 벗어나서 물리주의

- 3) 졸고(2004A), 「기능적 환원주의와 인과적 세계관 - 강제권과 암스트롱의 실재론」(『철학적 분석』 9호, 한국분석철학회, 2004 여름). 또 선생의 기능주의와 사건 존재론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졸고(2000), 「강제권의 새로운 심신 동일론」(『철학적 분석』 2호, 한국분석철학회, 2000 겨울)을 보라.
- 4) 선생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의식의 기능화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Flanagan, O. J. (1992), *Consciousness Reconsidered* (The MIT Press)이 있다. 실제로 의식과 감각질이 정신 인과에 개입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능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기능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이유는 감각질과 의식은 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물리계의 양적인 인과법칙에 원초적으로 포섭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5)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것으로 Searle, J.(1992) *The Rediscovery of the Mind* (The MIT Press)가 있다. 이 책에 대한 본인의 서평인 졸고(1994), 「주관적 의식의 형이상학 : 문제의 책, 존 써얼 『마음의 재발견』」(철학과 현실 1994 봄) 참조하라. 또 그와 비슷한 반(反)물리주의 주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McGinn, C. (1989), “Can We Solve the Mind-Body Problem?”, Nagel, T.(1974), “What Is Like to Be a Bat?”, Jackson, F.(1986), “What Mary Didn't Know” 등을 보라. 이 논문들은 모두 Block, N., Flanagan, O., & Güzeldere, G. (eds) (1997),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Debates* (The MIT Press)에 재수록되어 있다.

를 확고하고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것이 선생의 이론들 내부에서 결코 불가능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각질과 의식 등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론이나 현상학의 관점을 옹호하지 않는 한, 물리주의 존재론에서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학문과 과학의 이상은 탐구의 객관성인데, 어차피 감각질, 의식 등은 그 본성상 객관적인 탐구를 통해서도 결코 포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 감각질과 의식 등 현상적 속성의 환원불가능성은 “설명의 격차”일뿐 존재의 격차는 아니다.⁷⁾ 속성 2원론을 비판했던 선생의 배제 논변을 왜 감각질과 의식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 감각질과 의식이 적절하게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수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다른 정신 속성에 대해서 제기했던 비판적 시각을 감각질과 의식에 대해서는 거두는 것일까? 선생의 예전 논변대로라면 감각질과 의식의 환원불가능성은 부수현상론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선생의 물리주의적 세계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나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질과 의식 등 주관적인 정신 속성의 중요성에 관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⁸⁾ 그래서 자신의 물리주의의 일관성과 완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주관적인 현상 속성의 지위를 중시하고 있다. 선생의 “물리주의, 또는 거의 충분한 물리주의”라는 결론은 감각질과 의식 등 정신의 주관성과 물리주의의 두 가지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고 이해한다. 어쩌면 아마도 선생은 주관성을 보이는 현상 속성은 정신적인 것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것이 물리주의의 근본 주장에 큰

6) 주관적인 의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현상학에서 자연과학의 실증적 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도 이 점과 관련이 있다.

7) 김재권 (2000), *Taking Physicalism to the Limit* (김영정 외 역, 『극단에 선 물리주의』, 제1회 석학연속강좌 강연집)의 강연3, p. 82를 보라.

8) 주관성에 관해서는 김재권(2000)의 강연4 「물리주의와 주관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번 저서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상 이 책을 쓸 때 선생께서 더 큰 비중을 두고있는 초점인 지도 모른다.

나는 이러한 선생의 취지와 그러한 취지를 이루고 있는 선생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고민에서 이끌어져 나온 이 책의 결론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 정신의 주관성은 물론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설명의 격차”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그것의 절실함과 중요함은 설명차원의 것이지, 존재차원의 절실함과 중요함은 아니다. 선생의 철학적 생애를 통해 줄곧 옹호했던 물리주의라는 1원론은 선생의 시대인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심리철학계에서 주류 입장이 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사실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 차원의 절실함으로 말하자면 감각질과 의식과 같은 정신 속성 뿐만 아니라 선생이 거론했던 계층적 존재론의 모든 존재 계층이 각각 나름대로 다른 계층과는 차별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하는 고유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 계층의 고유한 속성은 모두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설명되어야 할 절실한 것들이기에 우리 인간은 여러 학문 분야를 세분화하면서까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 차원이 아닌 설명 차원의 절실함이라고 해서 그것의 학문적 비중이 약화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형이상학 내지 존재론이라는 철학적 관심에서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분야의 학문들과는 상이하고 독특한 관점을 적용할 뿐이다. 따라서 의식과 감각질 등 설명 차원의 절실한 속성들은 형이상학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면에 형이상학에서는 세계와 존재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선생은 기능적 환원주의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기 이전에도 정신 실재론을 부정하는 제거주의와는 달리 정신 실재론과 물리주의를 함께 옹호하기 위해서 심신 환원주의를 옹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선생은 정신 인과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정신적인 것의 실재를 강조하곤 했다. 나는 혹시 의식과 감각질의 주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선생의 결론이,

선생께서 늘 실재론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철학에서 실재론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실재론이든 인식 주체의 인식, 언어, 이론과 상관없이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실재론의 입장은 진리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과 자연스럽게 연루되어 있다. 우리가 의식이나 감각질과 같은 주관적인 정신 현상에 대해 진술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든 절실한 진술이라면, 그것에 대해 감히 선뜻 거짓 진술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것은 나름대로 참인 진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별히 존재론적인 반성을 필요로 하는 형이상학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러한 진술의 참을 굳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절실한 진술이라고 해도 존재론적으로는 참이 아니고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진술에 불과하다고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존재계층들에 대한 이러한 ‘참 진술들’은 이상하고 무질서한 존재론을 귀결시킨다.⁹⁾ 선생이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논거중의 하나도 사실은 환원주의가 이런 존재론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나는 이제 이러한 실재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실체 차원에서는 1원론이 당연시되고 속성들 간의

9) 줄고(2002), 「참을 수 없는 존재론의 가벼움 - 속성 이원론에 대한 비판」(『철학적 분석』 6호, 한국분석철학회, 2002 겨울) 4장 참조.

10) 하지만 사실은 심신 영역 이외에도 많은 다른 존재계층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신 환원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계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본 학술지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줄고, 「일반화 논변과 심신 환원」의 2장 참조] 선생은 이와 관련하여 전작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에서는 심신 간의 관계를 다른 존재계층들 간의 관계와 다른 것으로 보고, 그러한 구별을 위해 ‘위(level)’와 ‘차(order)’를 구별하였다. 하지만 나는 줄고(2000)에서 이 구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3장, 특히 pp. 134이하를 보라.] 선생은 그 이후 2000년도 서울에서 있었던 석학연속강좌에서도[김재권 (2000), *Taking Physicalism to the Limit* (김영정 외 역, 『극단에 선 물리주의』, 제1회 석학연속강좌 강연집)]에서도, 또 이번엔 나온 책에서도 ‘위’와 ‘차’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관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현재의 심리철학의 상황에서 ‘실재론’이란 속성 실재론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 인과, 인과법칙,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위상 등 최근의 심신 문제와 관련해 주로 논의되는 주제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때의 ‘속성 실재론’은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이 될 것이다. 심신 문제와 보편자 문제는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왜 하필 심신 문제를 논의하면서 보편자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의 논의에 익숙한 전문철학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자. 선생께서 배제논변, 수반논변 등으로 한 동안 심리철학계의 주류 입장이었던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 이래,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도록 지금까지도 그러한 비판을 극복할만한 대안은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근본적인 개념들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에 대한 재검토는 침체되어 있는 심리철학의 문제에 중요한 새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¹¹⁾ 사실 심리철학계가 이러한 미궁에 빠져들게 된 데에는 배제논변과 수반논변등 선생이 제기한 중요한 주장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간행된 선생의 새 책은 뜨거운 논의의 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심리철학계를 보다 큰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는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11) 심신 문제와 보편자에 관한 필자의 생각으로는 줄고(2004B), “물리주의와 보편자”(『철학적 분석』 10호, 한국분석철학회 2004 겨울), 그리고 줄고(1995)도 참조.